

여의도



지금까지 23 년의 삶을 되돌아 보면, 인생은 만남의 연속이었다. 나는 유치원때부터 지금까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살고 있다. 그리고 가만히 있는 나의 앞을 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갔다.

초등학교때 만남의 범위는 '동' 이었다. 그저 같은 동네에 살고, 어머니끼리 친하고, 학교 끝나면 자유롭게 노는 그런 비슷한 만남이 전부였다. 하지만 누구와 놀아도 대부분 비슷했고 잘 맞았다. 안정적이었다.

중학교때 만남의 범위는 '구' 였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 동네 친구들 중 절반은 학업을 위해 '대치동', '광장동', '수서동'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영등포동', '신길동' 주변 지역의 친구들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성격이 나랑 맞지 않는 친구들도 많아 처음에는 낯섭이 힘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어렵지 않게 친해질 수 있었다.

고등학교때 만남의 범위는 중학교때와 마찬가지로 '구' 였다. 하지만 이제 더이상 초등학교때 알던 친구들은 없었고, 모두 낯선 친구들이 그 자리를 메웠다. 중학교때 미리 낯섭을 겪었기 때문일까, 마치 예상문제를 푼 문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 문제가 술술 풀리듯, 나는 그들과 문제 없이 어울렸다.

대학교때 만남의 범위는 '대한민국'이었다. 대학교에 오자 '광주', '대전', '부산' 전국 각지에서 온 친구들을 만났다. 그들은 20 년간 완전 다른 세상에 살아온 친구들이기에 아주 신기한 존재였고 새로웠다. 하지만 같은 흥미를 가지고 같은 대학에 왔기에 관심사가 많아 말이 잘 통하는 친구들이 많았다. 그래서 신기할 정도로 친해지기 쉬웠다.

21 살이 되자 나는 입대를 하여 처음으로 여의도를 벗어나게 되었다. 군대 때 만남의 범위 또한 대학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이었다. 하지만 관심사도 나랑 완전 맞지 않았고, 성격도 맞지 않았다. 완전 과격한 아이들도 있었고, 사기꾼도 있었고, 마음이 여린 아이도 있었다. 모든 것이 나와 달랐고, 공통점을 찾자면 비슷한 나이라는 것 뿐. 그리고 이러한 낯섬은 21 살의 내게는 너무 갑작스러운 만남이었다. 처음엔 그들은 정말 이해가 힘들어, 고민을 많이 하고, 마음 고생을 많이 했었다. 하지만 일년 반이라는 기간동안 같이 먹고 자며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인생을 살면서 가장 많은 것을 배운 시기는 군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

이렇게 23 년간, 서서히 만남의 범위는 넓어졌고, 어려워졌다. 그리고 내가 맨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과 만날 수는 없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만남을 통해 내가 내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 음악을 듣기 시작할 때는 꽂히는 음악으로 시작하지만,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하며 낯선 다른 것도 들어보며 결국 다양한 음악을 사랑하게 된다. 만남이란 '내'가 낯선 사람의 내면에 있는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도 그런 만남을 계속해가고 싶다.